

## 오카모토 유리 (岡本硝子株式会社) [시작은 언제나 내가 한다, 그것도 내가 하겠습니다]

### (1) 기업개요

소재지	千葉県柏市十余二380番地
설립연도	1928년
분야	광디마이스용 유리와 다층막증착(多層膜蒸着)제품 제조 판매
자본금	1억 9천만 엔
URL	<a href="http://www.ogc-jp.com">http://www.ogc-jp.com</a>

### (2) 기업이념 및 경영방침

Yes, I can. 사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주성을 촉구하는 오카모토유리의 행동규범이다. ‘시작은 언제나 내가 한다,’ ‘그것도 내가 하겠습니다’ 라는 행동규범 역시 경찰관료 출신 오카모토 츠요시(岡本毅)사장이 항상 직원들에게 강조하는 업무에 임하는 태도다. 오카모토 츠요시 사장은 도쿄대(東京大) 법학부를 졸업하고 경찰청에 들어가 16년간 근무하다 1995년에 선대 경영자 아버지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경영일선에 뛰어들었다.

그 후 특수유리 제조의 기초를 더듬더듬 하나씩 익히는 과정에서 특수유리 제조 방법의 무한함을 깨닫고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게 되었다. 특히 작업장에서 흘리는 직원들의 땀의 의미를 높게 존중하는 회사풍토를 만드는데 주력했다. 그 결과는 세계 유일의 특수유리 제조기술을 보유한 회사라는 명성을 얻었다.

직원들의 행동규범에 걸맞게 오카모토 유리가 내세운 기본적인 경영

이념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를 실현시키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평범해 보이지만 자신감이 그 이면에 있는 것을 읽을 수 있는 기술본위의 기업임을 알 수 있다.

### (3) 특징(상대적 우위성 혹은 독창성, Only-One 내용)

이 회사가 만드는 특수유리는 치과의사의 진찰 스타일을 바꾸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치과의사는 거울이 달린 기구를 머리에 쓰고 입속을 비추어 치아를 치료했었다. 내과 혹은 이비인후과의 의사 역시 비슷한 스타일로 진료를 봤다.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모습을 어디서도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이렇게 진찰 스타일이 싹 바뀐 것은 오카모토유리가 그림자를 거의 만들지 않는 밝은 의료용 특수유리를 개발했기 때문이다. 유리로 빛을 반사시켜 불 필요가 없어져 스타일이 바뀐 것이다.

치과 혹은 내과뿐만이 아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오카모토유리의 제조기술이 빛을 발하는 곳은 고도의 의료기술을 필요로 하는 신경외과와 심장 또는 암 수술과 같은 첨단의료분야이다. 이들 분야에서는 열을 갖고 있는 빛이 환부에 닿으면 그 부분이 뜨거워져 대량출혈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높아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하는 부위가 잘 보이도록 밝게 비추어야 하며 수술용 칼 등으로 생기는 그림자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조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까다로운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고도의 특수유리가 바로 ‘다층막광원반사경(多層膜光源反射鏡)’이며 이 유리는 세계에서 오로지 오카모토유리만이 만들 수 있다.

### (4) 성장과정 및 향후 과제

1929년 회사를 설립한 그 이듬해 옛 일본해군으로부터 선박용 조명과 신호등에 쓰이는 유리를 제조하는 공장으로 지정을 받았다. 또한 과거 일본의 철도청으로부터 철도차량용 유리를 만드는 공장으로도 지정되었다. 다른 회사가 흉내 내지 못하는 색상유리를 생산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해군과 철도청은 엄격한 품질검사로 유명했었기 때문

에 설립 초기부터 오카모토유리는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어렵지 않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 후 오카모토유리의 발전과정에서 또 다른 성장의 계기를 찾는다 면 단연 ‘거의 깨지지 않는 유리’를 개발해 낸 것과 ‘태양의 자연광에 가까운 반사경’ 개발에 성공한 것을 꼽을 수 있다.

자연광과 흡사한 반사경 제조는 거래처였던 조명기기 회사로부터 ‘미묘한 색을 표현할 수 있는 유리제품의 반사경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에 의해 만들어 졌다. 태양의 자연스러운 빛과 같은 미묘한 색을 낼 수 있는 품질을 요구했던 것은 각종 상품의 디스플레이용 조명기구를 만드는 회사였다. 세계 초일류 브랜드의 의상을 전시하더라도 디스플레이에 쓰이는 자연스럽지 못한 조명 때문에 상품의 미묘한 색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줄곧 외부 업체에게 맡겨 왔던 표면처리막의 개발을 자사로 들여오는 등의 기술개발을 통해 주문했던 요구에 부합하는 제품을 납품할 수 있었다.

태양빛과 거의 같은 색을 표출해 내는데 성공하면서 개발된 이 반사경은 당초의 목표였던 디스플레이용뿐만 아니라 그 응용분야가 급속히 확대되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큰 호응을 받은 것이 치과치료용 거울과 수술용 조명등이었다. 치과치료용 거울은 열을 머금은 빛을 반사시키지 않고 투과하여 광원(光源)에서 나온 빛을 여러 복수의 각도에서 반사시킨다. 그 결과 입안을 그림자 없이 골고루 밝게 비출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수술용 조명에서는 열을 발산하지 않는 빛을 반사시켜 의사가 단번에 동맥과 정맥을 구분할 수 있도록 자연광에 가까운 빛을 실현시켰다.

또한 이 제품이 열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여 의료용뿐 아니라 액정프로젝터의 반사경으로도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 분야에서도 국내외에서 약 80%에 가까운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오카모토유리의 기술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기술 개발력만이 아니다. 자긍심으로 무장된 기능공들의 쇼쿠닌가타기(職人氣質, 장인기질)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술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물론 자동화기기에 의존하는 비중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장인의 손끝에서 결정되는 유리의 마무리 작업은 그들이 아니면 아무도 침범하기 어려운 성역으로 여겨진다. 오카모토유리가 2002년 일본 경제산업성이 선정한 ‘세계 톱 벤처 중소기업’ 7개 회사에 포함된 이유도 탁월한 기술력에 의한 세계 시장

점유율을 인정받았기 때문이었다.

오카모토유리는 자본금 약2억 엔에 250여명(약 20%가 연구개발 인력)의 직원이 근무하는 전형적인 중소기업이다. 오카모토유리가 속하는 특수유리업계와는 달리 일본의 판유리(plate glass)업계는 3개의 대기업에 의해 과점상태를 오래전부터 유지해 오고 있다. 언제 비슷한 시장규모를 갖고 있는 특수유리업계에 자본력을 앞세워 대기업들이 진출할지 모른다. 그러나 오카모토유리와 같은 타사의 추종을 허락하지 않는 기술력과 그러한 기술에 대한 집념을 가진 회사를 단순히 자본력만으로 뛰어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 <참조자료>

黒崎誠(2003), 『世界を制した中小企業』, 講談社 現代親書.

經濟産業省홈페이지(<http://www.meti.go.jp/>)

岡本硝子홈페이지(<http://www.ogc-jp.com/>)